

여러분들은 사람을 아
시나요?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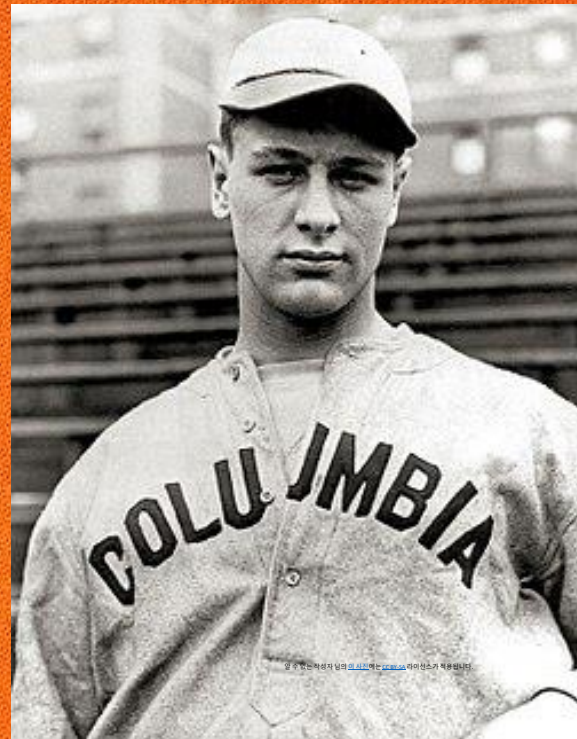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과학에 기여했습니다.

블랙홀이 있는 상황에서의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했으며, 자신의 이론 및 일반적인 우주론을 다룬 여러 대중 과학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티븐 호킹을 과학보다는 “장애”를 가진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이 있었습니다.

루 게릭 이라는 미국 야구선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병 입니다. 몸이 점점 굳어지고 심장마저 정지시키는 불치병 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려 약 57년 정도를 루게릭병에 힘들어하다가 2018.3.1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호킹 박사는 죽을때까지 과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병으로 살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했죠.

스티븐 호킹도 그의 삶을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평소 활동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은 활동에 지장을 받는 순간이 아닌
우리들의 시선과 놀림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저희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죠 모두 장애인
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
다.



통합진보당